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 주축이 된 독서모임을 찾기로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학교 내에서도 독서모임이나 문예반은 점차 쇠퇴하고 대신 영상, 춤 등과 관련된 모임이 청소년들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와 무관하게 청소년에게 독서의 중요성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수행평가의 도입으로 일부학교에서는 동화나 단편소설을 써오라는 과제를 내주기도 한다. 시험지의 긴 지문은 독서량이 부족한 수험생들의 애를 먹인다. 뒤늦게 독서의 필요성을 느낀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속독학원에 보내기도 하지만 단순히 빨리 읽는 것만으로 이해력이나 사고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중학생으로 구성된 한가람독서회는 매달 1회 마포평생학습관에 모여 독서토론을 벌인다. 물론 학생들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같은 텍스트를 놓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즐거움은 강사의 일방적인 설명을 들어야 하는 학원과는 비교할 수 없다. 박은택(경성중학교 2학년), 임우석(경성중학교 2학년), 이정민(신수중학교 3학년), 김미현(성산중학교 3학년) 등 네 명의 한가람 독서회 회원들을 만나 남들은 모르는 독서모임의 재미에 대해 들어보았다.

청소년독서모임 탐방

임우석 전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어요. 은택이 어머니가 은택이가 독서토론회에 가는데 너도 가지 않겠냐고 해서 따라왔죠. (웃음) 하지만 막상 책을 읽다보니 평소 즐겨하던 컴퓨터 게임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책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지식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해줬어요. 특히 개인적으로는 동물에 관한 책과 잡지를 좋아해요. 김미현 아무래도 내년에 고등학생이 되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보고 싶은 책을 충분히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책은 다른 활동보다 여운이랄까요, 뭔가 내 안에 깊이 와 닿는 게 있고 또 읽고 나면 가치 있는 일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밝아져요. 이정민 온가족이 함께 매주 이곳에 와서 책을 빌려가요. 책은 만화책에서부터 동화책, 무협지, 소설 등 가리지 않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책을 좋아해요. 최근엔 친구의 추천으로 카프카의 소설을 읽었는데 새로운 충격을 받았어요. 《토지》도 아직 1권 밖에 보지 못했지만 재미있는 것 같구요.

박은택 전 책을 통해 접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에 흥미가 가요.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이야기도 좋아하구요. 전 마술을 좋아하는데 막상 마술책은 비싸서 못 사보고 있어요. 임우석 전 아직 어려서 그런지 책을 읽고 삶이 변한 건 없어요.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컴퓨터 게임을 하는 시간을 줄여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책은 아닌데 <TV동화 행복한 세상>을 보고 변한 게 있긴 해요. 옛날엔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냥 외면했는데 그 프로를 본 후로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동전을 넣어준다거나 물건을 사주곤 해요. 김미현 전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를 읽고 자극을 받았어요. 요즘은 추리소설에 폭 빠져 시는데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으니까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중학생으로서 책을 읽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시험이에요. 무엇보다 삭막한 입시 때문에 일분 일초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중학생이 되고 나서 공부하라는 어머니의 잔소리도 부쩍 심해졌죠. 이정민 맞아요. 시험기간엔 책을 훨씬 덜 읽어요. 아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때 더 많이 읽자고 생각해요. 전 그나마 집에서 가까운 곳에 도서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어 다행이지만 친구들은 그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책을 못 읽는다는 얘길 많이 들어요. 책을 사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사주는 것도 아니구요.

마포평생학습관 한가람독서회

게임에는 없다,
놀랍고 다양한 책의 세계에 빠진 아이들

박은택 전 컴퓨터 게임이 가장 걸림돌이 돼요. 솔직히 컴퓨터를 보면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억누르기가 쉽지 않아요. TV도 그렇구요. 저희 나이엔 원래 호기심이 많잖아요.(웃음) 제 방에 있다가도 TV 소리가 나면 뭐하나 보게 돼요. 김미현 아, 또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일부 성장소설이나 1318문고 빼고는 청소년이 읽을 만한 책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권장도서 목록을 봐도 너무 수준이 높거나 저희들의 관심사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많아요. 솔직히 요즘 고민은 제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제 친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웃음) 하지만 추천도서 목록에서 이런 제 고민을 풀어줄 만한 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임우석 특히 추천도서 목록은 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추천도서 읽고 책을 멀리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점을 역으로 이용해 흥미있는 소설이나 만화, 사진집 등 여러 책들을 조사시켜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을 새롭게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이정민 그런 면에서 독서회의 매력은 우리가 직접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할 수 있고 같은 주제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초등학교 때는 전학을 많이 다녀 친구들을 사귀지 못했는데 중학교에 와서 책을 통해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사귄 수 있었어요.

우석이와 은택이는 중 3이 되고 정민이와 미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된다. 다가오는 입시는 이들의 책 읽는 시간을 뺏어 갈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눈썹이 아니더라도 책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한 아이들이다. 시험 기간에 책 읽는 시간이 줄 듯 입시는 이들의 독서량을 줄일지는 모르지만 독서습관까지 빼앗아 가지는 못할 것이다. ■■

취재 신동섭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기존 성인작품 중에서 청소년에 맞는 작품 선별이 선행되어야



한가람독서회 양은진(38) 지도교사

마포평생학습관을 자주 드나들던 양은진 씨는 독서모임을 지도할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볼 수 있었다. 마침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뭔가 타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을 때였고,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해 꾸준히 어린이와 청소년 독서에 관심을 가져왔던 터였다.

“현재 16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청소년독서모임을 지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조심스러운 편이죠. 독서감상문을 써오게 한다든가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고 싶는데 그렇게 하면 그나마 오던 아이들도 안 올까 자제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한가람독서회의 경우 부모님들이 책에 관심이 많아 아이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여학생은 부모님의 의사와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고 남학생은 거의 부모님의 의사에 따르게 된다. 학원도 다녀야 하는 중학생들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요즘 아이들은 만화 빼면 시체라고 할 정도로 만화에 빠져 삽니다. 또 문학서보다는 기획서를 더 많이 읽고, 몇몇 아이들을 빼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정재승의 과학콘서트》 등 소위 베스트셀러를 선호하죠.”

양씨는 청소년 출판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작품에서 청소년이 읽을 만한 책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말한다. 《지상에 손가락 하나》나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나의 아름다운 정원》 《새의 선물》 《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등은 성인소설이지만 성장소설로서 청소년 문학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대상에 대한 연구가 깊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기초가 부족합니다. 박상률 같은 작가가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 문학작품을 하는 작가층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좋은 작가들이 좋은 청소년 문학을 써주길 기대하는 것보다 기존의 성인문학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청소년들이 읽을 만한 작품을 선별해서 문학선을 꾸미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출판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시장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청소년 출판의 활성화는 단지 출판계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 사서의 양성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단순히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책을 읽으라고 하면 오히려 학생들은 거부감을 느끼기 쉬우니까요.”

청소년에게 어떤 책을 읽힐 것인가 고민한다는 것은 단지 아이들을 위한 일에 그치지 않는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배우는 게 더 많다’는 양씨의 말처럼 오히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더 배우는 것은 어른들이다. 출판계가 청소년이 책을 안 읽는다고 질책하기 전에 청소년출판 콘텐츠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정민



임우석



김미현



남우재